

# 금호나 호반이나... 자금동원력이 승부 가를 듯

## 금호산업 인수 2파전 ... 두 기업 명운 걸고 대결

### 금호그룹, 공제회 등과 접촉 ... 호남 경제인 기반 자금조달

### 호반건설, 하나금융서 4000억 지원... 1조 이상은 난색

금호산업 인수전이 사실상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금 동원력'을 둘러싸고 막판에 불이 붙고 있다.

28일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27일 호반건설이 하나금융으로부터 4000억원의 지원을 얻어내 자금력에 승부수를 띄웠고, 금호아시아나 역시 광주 지역 경제인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두 기업이 명운을 걸고 벌인 금호산업 인수전은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금호산업 본입찰 참여자적은 현재 지난 2월 말 예비입찰에 참여해 입찰절차로 선정된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IBK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펀드 등 5곳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4곳은 실사에 큰 무계를 두지 않는 등 사실상 호반건설의 단독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반건설은 27일 본입찰에 최종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입찰가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가격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서류 접수 전 직접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은 5000억~1조원 사이에서 입찰가를 검토중이지만 시장의 예상처럼 1조원 이상은 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은 이날 하나금융에

## ■ 금호산업 인수전 향후 일정

- 4월 28일 본입찰 접수 마감
- 4월 말~5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주 내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 체결 후 1개월 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 우선매수권 행사 후 2주 내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후 3개월 내 주식거래 대금 완납

서 4000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서(LOC)를 발급받아 현금유동성 5000억원에 하나금융의 지원금 4000억원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 인수에 나섰던 사모투자펀드(PEF)들의 불참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

던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비상이 걸렸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와 호남지역 경제인들을 동원,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고 그룹을 되찾아올 계획이었지만 호반의 여유있는 자금력 확보에 '실탄'을 더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미 재계의 친분을 이용해 자금 마련에 나섰으며 한때 금호타이어 등에 자금을 보냈던 대형 공제회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회장의 모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 경제인들이 박 회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채권단 보유 자본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 인수에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예상가를 크게 넘어선 가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을 최고가에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결국, 현금 동원력에서 승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57.54 (-2.26)
-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2)
- ▲ 코스닥 699.39 (+8.65)
- ▼ 환율 (USD) 1073.00원 (-6.40)

## 광주만의 기업문화·노사 상생모델 만들기

###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

### 29일 전남대서 콘퍼런스

민주평화의 도시, 광주만의 바람직한 기업문화와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최근 출범한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상봉)가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대 인문대에서 '여러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제1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해외 각국의 기업,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광주형 사회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 국내외 학자, 전문가들이 중국,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기업과 노사문화를 다룬다. 그동안 기업 지배 구조와 노사관계를 조명하는 행사는

개최됐으나, 이번처럼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포럼이 열리는 것은 드물다.

행사에서는 기업구조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야모토 미쓰루(일본 센슈대) 교수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일본기업의 다양성'을 주제 발표한다. 그는 경영혁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핵심가치로 두고 장기고용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소개한다.

이상호(전순욱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주제의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민주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를 조명한다. 행사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62 530-4192~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기술지원 '썬테크' 코넥스 상장

### 디젤발전기 생산, 매출 179억

전남테크노파크로부터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을 받아온 (주)썬테크가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 오는 29일부터 주식거래를 시작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디젤발전기를 생산하는 (주)썬테크에 대한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

(주)썬테크는 지난 1996년 설립해 영구자식을 응용한 디젤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7년 (재)전남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서 2014년 매출액 179억,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주)썬테크의 주요 제품인 디젤발전기는 주로 비상용 발전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파트 또는 대형 건물 시설에 설치되거나, 도로시설(터널), 발전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품의 특징은 타 발전기와 달리 코일이 아닌 영구자석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인증으로부터 디젤 발전기에 대해 NEP(신제품인증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홍중희의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더 많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및 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 경제계, 중흥건설 사장 선거 탄원서

지난 23일 구속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대해 광주지역 경제계가 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0일 600여 개 지역업체 명의의 조속한 수사해결 및 정 사장의 구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중흥건설에 전달했다. 광주·전남도회 측은 대기업 수준의 전국구 건설사로 성장한 중흥건설이 창사 이래 계속 지역에 분사를 두고 지역발전 주체기업으로 활동했던 점을 감안해 정 사장을 선거에 달라고

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최근 '중흥건설 사장 선거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서를 회원사 300여 곳으로부터 받아 중흥건설에 전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이 경영상 문제에 부딪힐 경우 지역 경제계가 큰 폭풍을 입을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중흥건설은 올 상반기 공급예정 이던 순천 신대지구와 광교신도시 사업 등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호남선 KTX 2단계 빨리 확정을”

### 노선확정 지연 2020년 완공 차질 우려

### 광주상의, 정부 등에 건의

### KTX 운임 재산정 요청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가 27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2020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나주역·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개 기관에 건의했다. 건의 안엔 호남선 KTX의 적정운임을 재산정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용산~광주송정)의 노선 확정부터 개통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못했는데 마무리 단계인 2단계 사업마저 건설비 절감을 원하는 기재부의 ‘나주~무안공항-목포’ 경유노선 변경 요구로 담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노선확정 지연으로 2020년 말 완공 목표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교통기반 시설이 낙후된 호남지역에 대한 선행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이었다”며 “기재부의 사업비 절감(안)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당초 건설 취지와 배치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선 확정이 지연될 수록 추가비용 상승과 경부축과의 격차 확대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편익이 감소하는 만큼 국가고속철도망 구축과 연계해 타지역과 나주~무안공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호남선 KTX 적정운임 재산정 건의에서는 “낙후된 고속철도망에 대한 후발투자자 인한 고속선로 비율 증가로 운임이 급상승하면서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으나 운행간격 및 중간역 정차로 인한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시간단축효과 대비 심리적인 비용 편익이 높지 않다”면서 “KTX 적정운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록 대체 운송수단과의 수요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이용률 정체로 이어져 향후 KTX 증편에도 차질을 가져 있으므로 현행운임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백화점 의류 매장은 벌써 여름

백화점 의류와 신발 매장에서 반팔 티셔츠, 민소매 원피스, 반바지, 미니스커트, 샌들 등 여름 상품비중을 늘리며 여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 광주의 백화점 한 여성복 매장에 반팔 티셔츠와 원피스 등 여름 상품이

전면 배치됐다. 백화점 의류와 신발 매장에서 반팔 티셔츠, 민소매 원피스, 반바지, 미니스커트, 샌들 등 여름 상품비중을 늘리며 여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선재광 원장의 암, 고혈압, 당뇨 잡는 '체온 1도'에 주목하라!

MBN <엄지의 제왕> '체온 1도의 기적' 편 방영 화제작!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할 책! 현대판 동의보감 <천기누설> 10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신재광 지음 | 정가 14,000원

천기누설 10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갑·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17,000원

인테리브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4-2669